

한국종교사학회 제11집

단군과 기자 관련 사료를 통해 본
『한단고기』의 역사성 검토

박병섭 (전북대학교)

한국종교사학회 제 11집 별책 부록
2003.

단군과 기자 관련 사료를 통해 본 『한단고기』의 역사성 검토

박 병 섭
(전북대 박사과정)

目 次

1. 『한단고기』의 단군과 기자 기록 내용
2.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 조선 등장 배경과 등장 과정
3. 『삼국유사』, 『제왕운기』, 『웅제시주』에서의 단군과 기자
 - 3-1 『삼국유사』의 단군수명 '1908년간'과 단군제위 '1500년간'의 의미
 - 3-2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간'의 의미
 - 3-3 『웅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의 의미
4. 『규원사화』, 『단기고사』에서의 단군과 기자
 - 4-1 『규원사화』의 단군조선시대 '1195년간'의 의미
 - 4-2 『단기고사(檀奇古史)』의 기자(奇子)조선과 전·후 단조(前·後檀祖)사이의 구분

* 주장의 요점:

단군과 기자에 대해 불일치하는 제 사서가 목걸이의 구슬들이라면 『한단고기』는 목걸이의 구슬 끈의 사서이다. (1) 한국사의 특정 주제(단군과 기자)에 대해 표면상 『한서』, 『후한서』, 『삼국지』, 『삼국유사』, 『제왕운기』, 『웅제시주』, 『규원사화』, 『단기고사』의 기록은 표면

상 불일치한다. (2) 표면상의 불일치는 해결할 수 있는 숨겨진 연결 고리의 사서가 『한단고기』이다. 『한단고기』는 사서간의 엇갈림퍼즐의 구멍맞추기를 할 수 있는 사서이다. 즉, 단군과 기자의 기록은 『한서』의 “8조금법”, 『후한서』-『삼국지』의 “기자의 40여대 후손 기준왕”, 『삼국유사』의 “단군 수명 1908년”과 “단군어국 1500년간”, 『제왕운기』의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왕”과 “기자조선 928년간” 그리고 “공백기 164년간”, 『응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간”, 『규원사화』의 단군조선 “1195년간”, 『단기고사』의 “기자조선(奇子朝鮮) 1052년간”과 “전단조 25왕와 후단조 23왕” 등으로 표면상 불일치한다. 『한단고기』 기록은 이러한 사서간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공백 퍼즐맞추기의 사서로서 모두 모순없이 연결할 수 있는 구슬의 끈 사서이다.

****공저자 박병훈(고창 강호 사이버교 교사)과 박병섭(전북대 철학과박사과정) 사이의 입장차이**

본고의 필자는 박병훈과 박병섭이다. 박병훈은 민족 주체성의 확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박병섭은 인류의 문명사(수렵·채취·어로문명, 유목·농경·해양문명, 자본·사회·공산문명; 수렵·채취·어로문명의 토테미즘 이전과 토테미즘, 유목·농경·해양문명의 샤머니즘과 고등종교, 자본·사회·공산문명의 과학)에 관심이 많다. 박병훈은 『한단고기』의 사료적 신빙성을 원칙적으로 100% 신뢰하고, 박병섭은 원칙적으로 신빙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중립적 입장이다. 박병훈은 『한단고기』가 한민족문명의 역사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병섭은 유목·농경·해양문명과 샤머니즘 시대에 대한 ‘결정적인’ 사례 중의 하나(『역사 발전 법칙의 문제: 천문학사의 쟁점』, 박병섭 2003년 철학회 발표 예정 참조) 일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본고의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개별적 발견은 박병훈의 연구이고, 이런 발견을 하나로 연결해서 정리한 것은 박병섭의 연구이다.

***본고의 서술방식

본고는 『한단고기』에 대한 연구(가칭 『한단고기 신연구』)에서 한 대목을 축약한 것이다. 서술방법은 편의상 『한단고기』 기록이 옳다는 전제 하에 검산을 하는 방식이고, 서술순서는 사서들의 역사순서와 같다.

<별지>『한단고기』;『한서』-『후한서』;『삼국유사』-『제왕운기』등 사이의 상관관계

[illegible]

1. 『한단고기』의 단군과 기자 기록 내용

『한단고기』는 ‘단군’ 조선 시대와 ‘기자’ 조선 시대에 대해 삼한, 삼조선, 대부여 시대로 나온다. ‘단군’ 시대는 진조선의 단군<천왕>과 막조선, 변조선에 각각 후왕이 있어서 삼왕제의 시대이다.

『한단고기』 「단군세기」에 진조선의 단군은 47대가 있다. 단군 조선의 47대 단군과 그 재위 년도를 서술한다. 즉, 1세 단군 왕검(-2333~), 2세 부루, 3세 가루, 4세 오사구, 5세 구을, 6세 달문, 7세 한을, 8세 우서한, 9세 아술, 10세 노을, 11세 도해, 12세 아한, 13세 흘달, 14세 고불, 15세 대음, 16세 동엄, 17세 위나, 18세 여을, 19세 종년, 20세 고희, 21세 소태(~~1286), 22세 색부루(-1285~), 23세 아흘, 24세 연나, 25세 술나(-1150~-1063), 26세 추로, 27세 두밀, 28세 해모, 29세 마휴, 30세 나휴, 31세 등을, 32세 추밀, 33세 감물, 34세 오루문, 35세 사별, 36세 매륵, 37세 마물, 38세 다물, 39세 두홀, 40세 달음, 41세 음차, 42세 을우지, 43세 물리(~~426), 44세 구물(-425~), 45세 여루, 46세 보을, 47세 고열가(-285~-238) 이다.

『한단고기』 「택백일사」 ‘변조선 상’과 ‘변조선 하’에는 변조선의 74세 대 제후왕이 나온다. 변조선의 74대 제후왕을 서술한다. 제후왕은 1세 치두남; 2 낭 사, 3 물 길, ..., 27 안 시, 28 해모라 29 소정 ; 30세 서우여, 31 아락, 32 술귀, 33 임나; 34 노 단, 35 마 밀; 36 모 불, 37 을 나, 38 마 휴, 39 등 나, 40 해 수, 41 오루문, 42 누 사, 43 이 별, 44 아 륵, 45 마 휴, 46 다 두, 47 내 이, 48 차 음, 49 불 리; ..., 56 소태이, 57 마 건, 58 천 한, 59 노 물, 60 도을, 61 술 휴, 62 사 량, 63 지 한; 64 인 한, 65 서 위, 66 가 색, 67 해 인, 68 수 한;

69 기후, 70 기옥, 71 기석, 72 기운; 73 기비, 74 기준 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단군 조선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 년도에만 유의하고, 변조선 제후와에 대한 기록 내용은 箕子 朝鮮이나 奇子 朝鮮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한서』-『후한서』-『삼국지』¹⁾의 기자 조선 등장 배경과 등장 과정

『한서』-『후한서』-『삼국지』에서 '40여대후 준왕'은 '변조선의 44대후 준왕'을 "기자의 40여대후 준왕"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것은 『한단고기』 「태백일사」에 등장하는 변한세가의 존재를 증명한다.

지나사[=중국사]에 기록된 소위 '기자조선설'의 변천과정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추적해 보면 지나사에서 기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1) 진 이전 서적에서 '기자'가 등장하는 『죽서기년』, 『상서』, 『한시외전』, 『논어』, 『좌전』은 기자에 대한 언급에서 기자조선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2) 진 이후 서적인 『상서대전』, 『사기』에서는 "기자가 조선의 왕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사기색은』, 『수경주』, 『대청일침지』는 각각 다른 황하 유역의 기자묘를 전하고 있다. 『사기집해』는 기자의 명이 서여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위 기록이 모두 진실이라면, 기자는 여럿이고 지나지역에 존재하였다. 윤내현은 이런 관점에서 설득력있

1) 역사 기록 대상은 『후한서』가 빠르고, 기록 시기는 『삼국지』가 빠르다. 『후한서』와 『삼국지』 사이의 사료적 가치 차이는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pp. 25~26 참조.

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²⁾

3) 한 이후의 서적인 『한서』, 『후한서』, 『삼국지』에 기자가 나온다. 『한서』, 『후한서』, 『삼국지』는 『상서대전』, 『사기』의 '기자'와 변조선의 30대 서우여를 동일시하고 있다. 『한서』는 『사기』의 "기자조선설"과 『사기집해』에서 사마표가 주장한 기자 이름이 胥餘라는 것에 유도되어 '기자'를 변조선 30대 徐于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료1, 『한서』 "동이전": 1. 은나라 도가 쇠하므로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와 농사 짓고 누에치는 것과 배자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과 조선 백성에게 금하는 법8조목을 만들었다. 2. 한서 지리지(낙랑군편) 조선 용소가 말하기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다.

사료2, 『삼국지』 "위지동이전": 1. 예와 옥저와 고려는 본래 조선 땅이다. 옛날 기자가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 짓는 것과 누에 치는 법을 가르치고 또 8조의 교훈을 가르쳤다. 2. 그 뒤에 40여 대를 지나서 조선후 준 때에 이르러 자칭 왕이라고 했다. (동이전 예)

사료3, 『후한서』 "동이전": 1. 옛날 기자가 조선에 가서 여덟가지 조목의 가르침을 만들어 가르쳤다. 2. 그 뒤에 40여대를 지나 조선후 준이 참람되히 왕이라 일컫자 진승 등이 일어나서 온 천하가 모두 진나라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동이전 예)

『한단고기』 「태백일사」에서 고조선의 8조금법은 변조선의 30대 서우여에 의하여 제정된다. 2. 40여대후 조선왕 준(45 대) 산정시점은 고조선의 삼한(~1286)에서 삼조선(-1285~)으로 국명개칭 시기이다.

2) 윤내현,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1986-1993. 5. 기자신고(五.箕子新考), pp.176~239.

즉, 『한서』의 “8조금법”, 『후한서』 『삼국지』의 “기자의 40여대후손 기준왕”은 『한단고기』 「단군세기」의 국명개칭과 「태백일사」 번조선 세가와 일치한다. 이것은 『한서』, 『후한서』, 『삼국지』 당시에 이미 『한단고기』와 같은 기록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삼국유사』, 『제왕운기』, 『웅제시주』에서의 단군과 기자

『삼국유사』, 『제왕운기』, 『웅제시주』 기록은 상호 불일치한다. 이런 불일치는 『한단고기』 내용이 『한서』, 『후한서』, 『삼국지』처럼 왜곡되자 양 종의 사서들 사이에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이고 실제 내용은 하나로 모두 같다.

3-1. 『삼국유사』의 단군수명 ‘1908년간’과 단군재위 ‘1500년간’의 의미

『삼국유사』의 단군수명 1908년간은 삼한, 삼조선 시대이고, 단군재위 1500년간은 “왕검”의 초기 칭호사용에서 삼한의 “단군왕검” 칭호 사용까지 1500년간 이다.

사료4.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기이편1 : 고조선): 나라를 다스린지 1천 5백년만에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 1천9백8세 였다고 한다.³⁾

1) 『삼국유사』 기록과 『한단고기』 기록을 정합시켜서 역사를 해석해 보겠다. 『삼국유사』는 단군재위 1500년 간과 단군수명 1908년

3)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 항목: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한단고기』에서 단군왕검과 신인 단군왕검은 구별된다.

단군왕검은 최초로 B.C.2622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자오지 환웅 시절이다. 동시대에는 고신과 대효가 있다. 단국 왕검은 ‘고’(=고신)와 동시에 개국한다. 단국 어국 1500년 간은 자오지 환웅시절의 단군왕검 封國 B.C.2622년에서 은멸망 B.C.1122년 이전까지로 계산 $2622-1122=1500$ 해서 1500년 간이다.

2) 신인 단군왕검은 삼한 관경을 통일해서 B.C.2333년에 개국한다. 동시대에는 요가 있었다. 단국 왕검은 ‘고’(=요)와 동시에 개국한다. 단군 수명 1908년 간은 실은 단군들이 동국해서 대부여로 국명개칭(B.C.1285년)을 하기 이전 시기까지이다. 단군 수명 1908년은 실은 단군 어국 1908년 간으로 개국 B.C.2333년에서 대부여로 국명개칭한 B.C.1285년을 빼고 계산 $2333-1285=1908$ 해서 1908년간이다.

3) 『삼국유사』는 기이편1의 표 제목으로 볼 때에 “고조선(=단군조선) 시대-위만조선시대”만 설정한다. 기자조선이라는 항목은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조선설”에 따라 ‘고조선(=단군조선)’ 항목에 기자조선’을 병행해서 첨가한다. 이것이 『제왕운기』를 자극한다.

3-2.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 간’의 의미

『제왕운기』에는 공백기 164년 간이 등장하는 데 이것은 『한단고기』 「단군세기」로 보면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국명개칭과 은멸망 사이의 공백기 164년 간이며, 또한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의 40여대 후 준왕’을 “기자의 41대후손 기준왕”으로 수정한다.

사료5, 『제왕운기』의 조선편: 제고와 동시에 무진년(B.C.2333년)에 일어나서 …나라를 누리기 1천2십8년…이 뒤 1백6십4년 만에…후 조선의 시조는 箕子…41대손의 이름은 準…9백 2십 8년을 다스렸다.
註 本紀曰…이름은 단군이고, 1038년을 다스리고,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제왕운기』의 내용을 연대와 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제왕운기의 기록 내용 정리

구 분	단군조선	공백기	기자조선	비고(계)
기간(본문)	1천 2십 8년	1백 6십 4년	9백 2십 8년	2,120년간
기간(주)	1천 3십 8년	1백 6십 4년	9백 2십 8년	2,130년간

1) 『제왕운기』는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조선설(은밀망 B.C.1122년)’과 ‘기자의 40여대후 기준왕(B.C.221~B.C.194)설’을 따르면서,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서 입각해서 해석해보면 변한(B.C.233~B.C.1286)에서 변조선(B.C.1285~B.C.194)으로의 국명개칭이후의 역대 왕대수와 45대와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한서』, 『후한서』, 『삼국지』가 기자로 추정한 변조선 30대 서우여(B.C.1285~B.C.1225)와 은밀망시점(B.C.1122년)이 연대상 부정합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제왕운기』는 『한서』-『후한서』-『삼국지』가 기자를 추정할 때에 지나측 사서의 “주 무왕이 은밀망시(B.C.1122년)에 기자를 조선왕에게 봉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

기”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변)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을 보고 기준의 선조로서 기자를 추정하였다는 점을 알아 차렸다. 『제왕운기』는 은나라 멸망시기와 동시대의 (변)조선왕을 추적하였다.

『제왕운기』는 기자조선의 시점을 은밀망시로 보아서 B.C.1122년으로 보고 기준의 멸망 시점을 B.C.194년으로 보면 1122-194= 928으로 기자조선 928년 간을 확정하였다. 『제왕운기』의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은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입각해서 해석해보면 은밀망시(B.C. 1122년)에 변조선의 변왕을 추적하고 기자를 “변조선 33대 임나(B.C.1137~B.C.1106)”로 상정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제왕운기』는 삼한에서 삼조선으로의 국명개칭 시점 전해인 B.C.1286년과 은밀망 시점(=기자동래설 시점) B.C.1122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파악하고 괴리기간 1286-1122=164로서 164년 간의 공백기를 두었다. 『제왕운기』가 설정한 공백기 164년 간은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입각해서 해석해보면 삼한에서 삼조선으로의 국명개칭(B.C.1285년) 사실과 『한서』, 『후한서』, 『삼국지』가 은밀망시(B.C.1122년)로 상정한 ‘기자조선설’의 파급효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시간적인 괴리시간 1286-1122=164로서 164년 간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 간은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기록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한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입증해준다.

2) 단군재위는 本文의 1028년 간도 註의 1038년 간도 납득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설의 출처는 해석할 수 없다. 이 불일치가 『웅제시주』를 자극한다.

3-3. 『응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의 의미

『응제시주』는 『제왕운기』의 1028년 간과 1038년 간을 교정해서 삼한 시대 1048년 간으로 정리한다.

사료6, 應制詩註 權擘(1462) : [원주] 예전에 신인이 단목 아래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기에 '단군'이라 불렀으니 이 때는 당노 원년인 무진년이였다. [중주] ... 단군께서는 우순씨와 하우씨를 지나, 상나라 무정 8년 을미에 이르러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으로 변화하였으니, 지금의 황해도 문화현 구월산이다. 그 묘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향년 1천 48년이다. 그로부터 164년 후인 기묘년에 기자가 와서 책봉을 받았다.⁴⁾

1) 『응제시주』는 “단군 향년이 1048년이고, 그 후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서 왔다”고 한다. 『응제시주』 기록은 『제왕운기』 기록에 의존하면서 부분적인 교정을 가한 것이다. 『응제시주』는 『제왕운기』의 단군역년 1028년 (주의 경우에 혹은 1038년)을 단군 향년 1048년으로 교정하고, 『제왕운기』의 164년 간의 공백기는 그대로 수용해서 역시 그 후에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 왔다고 말한다.

2) 『응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 간은 『한단고기』로 볼 때에 삼한 개국 B.C.2333년에서 삼조선 국명개칭 B.C.1285년을 뺀 2333-1285=1048로 삼한시대 1048년 간과 일치한다. (아마 B.C.2333년은 『삼국유사』에서, B.C.1285년은 『제왕운기』에서 파악해서 정리한

4) 『應制詩註』 命題十首 始古開關東夷主. 始古開關東夷主[自註] 昔神人降檀木下國人立以爲王 人號檀君 時唐堯元年戊辰也 [增註] 古記云...孕生子曰 檀君 與唐堯同日而立 國號朝鮮...享年一千四十八年 厥後一百六十四年己卯 箕子來封...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是號朝鮮.

것일 것이다.) 『응제시주』의 그후 164년 간은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국명개칭(B.C.1285년) 전해(B.C.1286년)에서 은멸망 (B.C. 1122년) 사이의 간격으로 계산 1286-1122=164해서 164년 간이다. 『응제시주』는 기자조선의 원년이 B.C.1122년이고,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왕은 생략된 것이지만 『응제시주』의 기자조선 역년은 『제왕운기』처럼 기자원년(B.C.1122년)에서 위만원년(B.C.194년)을 빼서 계산 1122-194=928하면 928년간으로 같다.

이상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는 기존의 한국 사서로서 위서라고 의심할 수 없는 나름의 근거가 확실한 사서들이다. 위사서들 사이에 표면상의 불일치가 사실상 『한단고기』의 기록으로 해명되고 있다. 이 사건 자체는 감탄스러운 정합성이다.

4. 『규원사화』, 『단기고사』에서의 단군과 기자

『규원사화』와 『단기고사』는 『한단고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단고기』 기록을 변형해서 등장한 사서들이다. 『규원사화』와 『단기고사』는 『한단고기』와 마찬가지로 근래에 발견된 사서로서 위서라고 의심받는 형편이므로 간략히 다루고, 본고를 통해서 『규원사화』, 『단기고사』, 『한단고기』 삼자 사이의 관계에서 『한단고기』가 가장 신뢰할만한 사서라는 정도만 입증하겠다.

4-1. 『규원사화』의 단군조선시대 '1195년 간'의 의미

『규원사화』는 자신의 전거인 『진역유기(=단군세기)』 내용에 대한

압축변형이며, 그 변형의 핵심은 『제왕운기』가 기자로 추정된 임나 원년 1137년과 공백기 1년 추가에 있다.

사료7. 『규원사화』 「단군기」: “이로써 나라는 마침내 없어지니, 임금으로 있는지 30년이요, 단검신인이 큰 위업을 처음으로 펼친 때부터 역년이 47세에 1,195년이다.”(『규원사화역주-역사로 기록된 고조선 이야기』, 김성구, 백산자료원, 1999. p.114.)

『규원사화』는 ‘기자조선설’의 영향으로 단군의 역사가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군의 역사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규원사화』는 우선 단군의 역사에 ‘기자조선설’이 끼여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의 기준시점인 은밀망시점 B.C.1122년에 주목하였다. 『규원사화』는 변조선의 왕들 중에서 은밀망시점 B.C.1122년에 해당하는 왕을 찾았다. 은밀망시점에 해당하는 왕은 임나(B.C.1137~1106)이다.

『규원사화』는 殷 멸망시점에 해당하는 변조선왕 임나(B.C.1137~1106)를 찾으면서 『제왕운기』의 영향을 받았다. 『제왕운기』는 기준왕을 기자의 41대 후손이라고 말하였다. 『규원사화』는 기준의 41대 선조를 찾아 보았다. 역시 임나가 나온다.

정리하면 『규원사화』는 단군시대는 단군 개국 B.C.2333년에서 기자로 추정된 변조선왕 임나(B.C. 1137~1106)의 등장까지로 상정해서 계산 2333-1137=1196해서 1196년 간이 나온다. 그러나 『규원사화』는 단군시대가 1195년 간이니 계산 2333-1195=1138해서 기자로 추정된 변조선왕의 등극시기가 1138년이 나온다. 이 경우에 기자로 추정된 변조선왕의 등극시기는 『규원사화』가 주장한 실제 1138년과 『제왕운기』가 추정된 임나(B.C.1137~1106)의 1137년과 1년 차이가 난다.

1) 『규원사화』의 단군조선 1195년 간은 『한단고기』에 입각해 해석해 보면, 단군개국 B.C.2333년에서 『제왕운기』의 “41대후손 기준”을 역순해서 조사하고, 동시에 은밀망시점 B.C.1122년에 해당하는 변조선의 왕을 조사해서, 선정한 임나의 원년 B.C.1137년을 빼고, 계산 2333-1137=1196 한 결과인, 1196년 간에서, 공백기 1년을 설정하여 계산 1196-1=1195하면, 1195년 간이 나온다.

2) 『규원사화』는 단군조선 시대로 왜 1196년 간이 아니고 1195년 간을 설정했을까? 『규원사화』는 『제왕운기』의 영향으로 수정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백기 1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규원사화』는 단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기자조선설’의 영향으로 아예 통째로 사장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4-2. 『檀奇古史』의 奇子조선과 前·後 檀祖사이의 구분

『단기고사』의 전·후단조는 『한단고기』 <단군세기>의 진한-진조선-대부여와 거의 일치하고, 『단기고사』의 奇子朝鮮은 『한단고기』<태백일사> ‘변조선계’와 기씨 일족 부분이 빠진 것 등만 제외하면 대부분 일치한다. 『한단고기』가 원본이고, 『단기고사』는 그것을 변형한 것이다.

그 핵심은 단군기원 B.C.2333+124년이고, 은밀망 B.C.1122+124년, 위만 B.C.194년이며, 기자조선(B.C.1122년+124년) 건국후에 후단조가 시작되어 전단조와 후단조로 구분된다.

1)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조선설의 영향
기자조선의 연대산정의 준거는 -1122 (은밀망)+124(소강절 축소

분)이다. 『단기고사』는 前檀朝 1214년 간, 後檀朝 875년 간 합계 2099년 간을 주장하고, 奇子朝鮮 1052년 간을 주장한다. 그런데 『단기고사』(적어도 본고가 참조한 역주본)는 자체의 기간 정합성도 없다.

(1) 기자조선의 역년 1052년 간

“제1세 기자부터 제42세 기자까지 역년 1052년이다.”⁵⁾

『단기고사』의 기자조선 역년 1052년 간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한단고기』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드러난다. 『단기고사』는 기자조선 원년인 B.C.1122년을 소강절이 연대 축소했다는 124년을 추가 $1122+124=1246$ 해서 B.C. 1246년으로 수정하고, 기준왕이 망한 시점인 194년은 수정없이 유지하면 기자조선은 $1246-194=1052$ 해서 1052년 간이 나온다.

(2) 후단조 역년 875년 간

『단기고사』의 후단조 역년은 875년 간이다. 『단기고사』에 따라 계산하면 기자조선 멸망 시점 1122년에서 47대 고열가 멸망 시점 238년을 잡으면 $1122-237=885$ 로 역년 885년 간이 나와서 10년 차이가 나고 있다. 『단기고사』의 후단조 875년 간은 『한단고기』로 해석해 보면 ‘술나 39년 1112년 - 고열가 58년 238년 직후년도 237년 = 875년간’이다. 술나 39년은 『한단고기』에서는 B.C. 1112년이지만 『단기고사』에서는 B.C. 1246년($=1122+124$)년이다. 그런데 『단기고사』의 후단조 역년 875년과 정합하는 것은 술라 39년을 『단기고사』의 년도($1122년+124$)가 아니라 『한단고기』의 년도(1112년)와 일치시켜야 부

합한다. 이 시기는 다시 해모수의 등장시기(237년)와 부합해야 한다. 『단기고사』가 설정한 후단조 875년간은 『한단고기』를 저본으로 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년도이다.

(3) 『단기고사』 년도 기록의 내적 불일치 : 전단조 1214년간 ?

『단기고사』의 전단조 1214년 간은 내적으로 불일치하는 기록들이 다.

제1편 전단조선 마지막 부분: “第二五世 檀帝 <이름은 率那이며 39년간 재위하셨다>...39년에 단제께서 吉林에서 영고탑에 移都하셨다. 前檀祖 제1세 단제로부터 25세단제 술나 재위 39년까지 무릇 25대 歷年이 1214년이다.”⁶⁾

제2편 후단조선 처음 부분: “제2편 후단조선, 후단조 1세 단제, 후단조 제1세 단제 술나는 전단조 제23세 단제 아홀의 둘째 아들이시고, 제24세 연나의 동생이시다. 단군기원 1240년 7월 15일에 영고탑에 천도하셨다.”⁷⁾

제3편 기자조선 처음 부분, “기자의 성은 환씨이며 이름은 서여이다. ...전단조 25세 39년에 보위에 오르시고, 평양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시고, 국호를 조선이라 명명하셨다...”⁸⁾

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단 조선과 기자 조선은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고탑으로 이도한 시기는 ‘단군기원 1240년’과 ‘전단조 역년 1214년 간’의 숫자가 일치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일치한다. 이렇게 되면 단군조선의 기원에서부터

6) 원저 대야발, 감수 정해백, 번역 유태우, 정창모, 『단기고사』, 음양맥진출판사, 1984-1993, p.108.

7) 上同, p.111.

8) 上同, p.157.

5) 원저 대야발, 감수 정해백, 번역 유태우, 정창모, 『단기고사』, 음양맥진출판사, 1984-1993, p.228.

시작해서 출발해도 전단조 25세 솔라 39년이라는 기준 시점이 몇 년 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다.

2) 『삼국유사』의 기자조선설의 영향: 수도의 이전

(1) 『단기고사』가 전단조와 후단조를 나누는 준거로 왜 수도 이전을 선택하였는가? 『단기고사』가 수도이전으로 전단조와 후단조를 나누는 이유는 『삼국유사』의 장당경으로의 수도 이전의 영향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편, “고조선”: 나라를 다스린지 1천 5백년만에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단군은 藏唐京으로 옮겨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 1천9백8세 었다고 한다.⁹⁾

『삼국유사』의 고대사 인식은 단군조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병존), 위만조선의 체계이다. 『단기고사』는 『삼국유사』를 추종해서 단군조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병존 체계를 구성하였다. 『단기고사』가 전단조 25세 단제 솔나 마지막에 영고탑으로 수도 이전을 기록하고 전단조의 마지막으로 설정하게 만든 근거는 『삼국유사』이다. 이도한 수도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착상이 작용하고 있다.

(2) 수도 이전 시기의 불일치

『단기고사』는 전단조와 후단조의 분할에 준거로 전단조 말기에 영고탑으로 수도 이전으로 끝맺고 있다. 전단조의 마지막 단제는 제 25대 단제 솔나이다.

9) 일연 『삼국유사』

“第二十五世 檀帝 … 39년에 단제께서 吉林에서 영고탑에 移都하셨다. 前檀祖 제1세 단제로부터 25세 단제 솔나 재위 39년까지 무릇 25대 歷年이 1214년이다.”¹⁰⁾

“제 2편 후단조선, 후단조 1세 단제, 후단조 제1세 단제 솔나는 …… 단군기원 1240년 7월 15일에 영고탑에 천도하셨다.”¹¹⁾

10) 대야발, 前掲書, p.108.
11) 上同, p.111.

<참고서적·후기>

1. 지나(중국) 사서
사마천, 『사기』, 반고, 『한서』, 범엽, 『후한서』, 진수, 『삼국지』, ...;
2. 한국 전통 전래 사서
일연, 『삼국유사』, 이승휴, 『제왕운기』, 권람, 『웅제시주』, ...;
3. 한국 근래 발견 사서
북에노인, 『구원사화』, 대야발, 『단기고사』, 계연수, 『한단고기』
4. 본고의 인용에서 구체적인 서적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시중판 어느 것이나 상관없기 때문이다. 위의 주 참고서적 이외에도 윤이흥 외저,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1997. 등도 보고, 단군 재위년도를 일일이 조사해 보았지만, 여기서는 사서들의 신빙성을 고려해서 생략해 버렸다.
5. 임승국 역주본 『한단고기』 1986년판을 1991년 인쇄본(38쇄)를 1995년 7월 3일 박병훈이 구입해서 연구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이었다. 박병훈은 열정적으로 연구해서 본고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순식간에 발견해 냈지만 적절한 출판사를 구하지 못했다.
6. 박병섭은 박병훈의 권유로 곧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저서가 위서 논쟁에 놓여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박병섭이 주변의 눈총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핵심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7. 본고에서 기존에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천절한 주’를 달아주지 않은 이유는 1) 서술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2) 원래 박병훈이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고, 3) 박병섭은 『한단고기』의 위서 논쟁 자체에 관심이 있지 개별적인 발견들에 큰 가

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며, 4) 덩으로 ‘천절한 주’를 달지 않은 서적이란 『실증한단고기』(이일봉, 정신세계사, 1998)에서 『삼국유사』의 단군나이를 단군조선의 기간으로 해석한 것 정도이다. 나머지는 『한단고기』 연구서는 많이 보았지만 ‘적어도 기억상으로는’ 남의 견해를 이용하지 않았다.

8. 본고는 『한단고기』 ‘위서 논쟁’에서 대업적인 박창일·나대일, 「단군조선시대 천문현상기록의 과학적 검증」, 『한국상고사학보』(제14호, 학연문화사.) 이래로 최대의 승부처가 아닌가하고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발견에 따르면, 『한단고기』는 조작불가능한 서적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범한 두뇌로는 조작할 수 없고 오직 천재만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감추고 있다. 그런데, 『한단고기』 내용은 이미 ‘위서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명왕성’을 거론하는 등의 각종 낯뜨거운 신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의 저작이다. 만일 『한단고기』가 평범한 범부의 순진한 조작이라면 개인적으로 그 핵심 내용이 위서라고 믿을 수는 없다. 본고에서 드러난 내용은 너무도 교묘해서 도저히 단순히 지나칠 수 없었다. 선배 동료 제현의 ‘문자 그대로 철저한 비판’만을 기대한다.

9. 본고는 전체 『한단고기 연구의 신지평』(가제: A4 117쪽 분량)의 일부이다. 원래 원고에는 도표정리가 많아서 이번에 재정리한 것이며 원래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쟁점: 상이한 단군(과 기자) 기록들/ 삼한, 삼조선, 대부여의 입증

1. 『한서』-『후한서』-『삼국지』의 선택: ‘40여대후 준왕’의 의미 (‘변조선의 44대후 준왕’을 “기자의 40여대후 준왕”으로 변형);
2. 『삼국유사』, 『제왕운기』, 『웅제시주』에서의 단군과 기자

2-1. 『삼국유사』의 단군수명 '1908년간'과 단군재위 '1500년간'의 의미 (삼한, 삼조선 시대 1908년간/ 단군왕검의 초기 칭호사용에서 삼한까지 1500년간);

2-2.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간'의 의미 (삼한에서 삼조선을 국명개칭과 은멸망 사이의 공백기 164년간/ '기자의 40여대 후 준왕'을 "기자의 41대후손 기준왕"으로 수정);

2-3. 『웅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의 의미 (『제왕운기』의 교정: 삼한 시대 1048년간);

3. 『규원사화』, 『단기고사』에서의 단군과 기자

3-1. 『규원사화』의 단군조선시대 '1195년간'의 의미 (『제왕운기』가 기자로 추정한 임나 원년 1137년과 공백기 1년 추가/ 진역유기(=단군세기) 내용에 대한 압축변형);

3-2. 『단기고사(檀奇古史)』의 奇子조선과 前·後 檀祖사이의 구분 (단군기원 B.C.2333+124년이고, 은멸망 B.C.1122+124년, 위만 B.C.194년/ 기자조선(B.C. 1122년+124년) 3년후에 후단조시작: 전단조와 후단조);

On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Handangogi* through the historical materials about dangun and giza

Park, Byung-Shup

Handangogi(『檀檀古記』) is the book of ancient Korean history. the Handangogi shows historical facts from about B.C.8,000 to 'the Gorea-Era'. This book was discovered in A.D.1911(broadly printed in A.D.1979). For this reason, there are some arguments about whether this book is forged or not. Professional historians doubt everything on the Handangogi.

This study shows that historical facts in the 'Dangun(檀君)' and the 'Giza(番朝鮮王)' of the Handangogi lie in [the 'Dangun' and] the 'Giza(箕子)' of well-known Chinese histories as well as Korean histories. There are the Shih-chi [史記](Records of the Historian) of Ssu-ma Ch'len, the Han-shu [漢書](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 by Pan ku, the Hou Han-shu [後漢書](History of the Later Han dynasty) by Fan Yeh, the San Kuo Chih [三國志](Chronicle of the Three Kingdoms) by Wei Shou, etc. in Chinese histories. These Korean histories are widely known Samguk-yousa[三國遺事], Jewang-oongi[帝王韻記], Wingjesi-zu[應制詩註] etc.

This study shows that the 'Dangun(檀君)' and the 'Giza(番朝鮮王)' of the Handangogi is consisted with the 'Dangun(檀君)' and

the 'Giza (奇子)' of the other Korean histories. The other Korean histories are Gyuwonsahwa[揆園史話] and Dangigosa[檀奇古史].

Histories from the 'Dangun(檀君)', 'Dangun-Zosun(檀君朝鮮)', seemingly are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 'Giza(箕子)', 'Giza-Zosun(箕子朝鮮)', 'Giza-Zosun(奇子朝鮮)': "Gizun King" from the Shih-chi [史記](historical records) by Ssu-ma Ch'len, "Eight prohibitive Law[八條禁法]" from the Han-shu [漢書](History of the Former Han dynasty) by Pan ku, "Gizun King, the presumably 40th successor of Giza" from the Hou Han-shu [後漢書] (History of the Later Han dynasty) by Fan Yeh, "Gizun King, the presumably 40th successor of Giza" from the San Kuo Chih [三國志]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by Wei Shou; "1908 years of 'the Dangun(檀君) age" and "1500 years of 'the Dangun(檀君) regime" from the Samguk-yousa[三國遺事], "Gizun King, the 41th-successor of Giza", "928 years of 'the Giza-Zosun(箕子朝鮮) regime" and "164 years of King-absented Era" from the Jewang-oongi[帝王韻記], "1048 years of 'the Dangun(檀君) age" from the Wingjesi-zu[應制詩註]; "1195 years of 'Dangun-Zosun(檀君朝鮮)'s regime" from the Gyuwonsahwa[揆園史話], "1052 years of 'Giza-Zosun(奇子朝鮮)'s regime" and "Pre-Kings Era's 25 Kings/ Post-Kings Era's 23 Kings" from the Dangigosa[檀奇古史], etc.

We make out historical mysteries through Handangogi[『檀檀古記』]. If we interpret ancient histories with the Handangogi[『檀檀古記』], histories from the 'Dangun(檀君)', 'Dangun-Zosun(檀君朝鮮)'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Giza(箕子)', 'Giza-Zosun(箕

子朝鮮), 'Giza-Zosun(奇子朝鮮). Handangogi[『檀檀古記』] is the important key to solve puzzle of history.

Key-Words: Handangogi, Dangun, Jewang-oongi, Dangigosa